

취항 3개월만에 댄친 코로나... 정부지원도 끊겨 '막막'

✈️ 옥석 드러나는 LCC

⑦ 플라이강원

관광+항공 융합 외국인 유치 목표 전 국제선 운항 잠정중단에 무산
거점공항 3년유지 조건 면허발급 국내선도 양양공항 거점만 운항가능
공항활성화 예산 30억 감액 등 난항



플라이강원 항공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3개월 만에 날개를 접은 플라이강원이 정부 지원마저 받지 못하며 수세에 몰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1월 말 양양-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첫 취항에 나서며, 현재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 가운데 가장 늦게 업계에 발을 내디뎠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에어프리미아, 에어로케이 항공과 함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당시 플라이강원은 관광과 항공을 융합해, 거점 지역인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TCC(Tourism Convergence Carrier) 모델을 내세웠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하

면서 플라이강원은 취항 약 3개월 만에 위기를 맞게 됐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양양-대만 타이베이 노선을 시작으로, 필리핀 클라크 필드 등 국제선에 취항한 바 있다. 또, 올해 1월에는 국제선 대만 타이중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 세 번째 항공기를 들여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전 국제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고, 현재는 국내선 ▲

양양-제주 ▲양양-김포 ▲양양-대구 등만을 운영 중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보라는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영난 속에서도 플라이강원은 국내선마저 양양 공항만을 거점으로 취항해야 한다는 데 있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면서, 향후 1년 내 운항 증명(AOC) 신청과 2년 내 취항, 당초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거점 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를 조건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늘어난 국내선 수요에 맞게,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고 나선 다른 항공사와 달리 양양출·도착 노선만을 운항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 기반 항공사로서 받아왔던 자금 지원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강원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예산 30억원을 감액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었던 운항장려금 일부를 코로나19 등의 여파를 고려해 미리 지급하려던 것으로, 올해 운항장려금 60억원은 지난 6월 전 지급됐다.

이 같은 운항장려금의 전액 삭감에 따라 플라이강원의 경영난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해 말 기준 플라이강원은 이미 영업손실만 149억원인 상태였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첫 운항을 시작한 작년 11월 말부터 3년간(양양 공항 거점 운항)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운항장려금은 말 그대로 운항 시에 그 실적이나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다"며 거점 공항 3년 유지 의무 이후 상황 관련 "타 공항 기반의 운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한샘 "오프라인 매장에서 엘포인트 쓰세요"

롯데 엘포인트와 제휴

한샘은 롯데 엘포인트(L.POINT)와 제휴를 맺고 자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결제하거나 적립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한샘이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파크, 키친바흐대리점, 리하우스대리점, 인테리어대리점 등 전국에 위치한 800여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샘 매장 직원을 통해 원하는 제품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결제할 때 보유하고 있는 엘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샘 생활용품 매장에선 구매한 물품 가격의 0.3%만큼 엘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한샘은 론칭을 기념해 내달 31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샘 매장에서 엘포인트를 1000포인트 이상 사용한 한샘 멤버십 고객에게 50% 페이백 적립을



제공하고, 엘포인트 사용고객 중 한샘 멤버십에 신규 가입한 고객 500명을 추천해 엘포인트 1만포인트를 증정한다. 추가로 이달 30일까지 한샘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개된 엘포인트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한샘엘포인트런칭', '#한샘엘포인트페이백' 태그와 함께 친구아이디를 소환하면 추천을 통해 10명에게 롯데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공영쇼핑, 성수품 판매방송 60% 이상 편성

정부 민생안정대책 적극 동참 일한 쌀·김치·마스크 등 최대 54% 할인

공영쇼핑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관련 지원 상품 및 성수품 판매방송을 60% 이상 편성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2차 긴급재난금 지원이 결정되는 등 민족 최대명절인 맞아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다.

공영쇼핑은 14일부터 국민 물가안정 상품을 긴급 편성해 방송한다고 밝혔다. 쌀, 김치, 사과, 고춧가루, 마스크, 휴지, 물티슈 등 주요 생필품을 주로 판매한다. 특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윤을 최소화해 기존 상품 대비 10~54% 할



인, 판매한다.

이번 추석은 비대면 명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제품용과 명절선물로 많이 쓰이는 농축산물, 수산물 중심의 성수품 편성도 60% 이상으로 늘려 운영한다.

주요 판매 예정 상품으로는 한과세트, 떡, 홍삼, 양파즙, 한우, 굴비, 은갈치, 자숙돌문어 등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판매 촉진을 위해 할인, 적립 등을 지원하는 각종 특집전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영쇼핑은 아울러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은 KF94, KF-80, KF-AD 마스크를 '이윤제로' 수준의 특가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를 위해 총 2000만장 이상 확보해 9월 한달 간, 주 5회 60분 정규방송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성수품 판매 방송 관계로 마스크 계열라 판매는 일시 중단한다.

마스크 장당 판매 단가는 KF-AD 490원, KF-80 590원, KF-94 690원으로 50매씩 한 세트 가격이 각각 2만 4500원, 2만 9500원, 3만 4500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개발 시동

KT-GC녹십자헬스케어, 업무협약

KT는 GC녹십자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GC녹십자헬스케어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KT AI/DX융합사업부부장 전홍범 부사장, 5G플랫폼개발본부장 이윤규 상무, GC녹십자헬스케어 전도규 대표, 안효조 부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키워드가 급부상한 가운데 헬스케어의 분야에서 선도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GC녹십자헬스케어는 GC(녹십자홀딩스)의 헬스케어 부문 자회사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등 ICT 기

반으로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올해 AI/DX융합사업부문을 신설하고 ABC(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혁신으로 다른 산업의 발전을 리딩하기 위해 헬스케어, 제조,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KT의 ICT 플랫폼 역량과 GC 녹십자헬스케어의 헬스케어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사업 확산에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가정 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ABC플랫폼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5G-IPTV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공동 마케팅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채윤정 시전문기자 echo@

부릉, 쿡마켓·쿡마켓 PB상품 당일배송

메쉬코리아-쿡마켓, MOU 체결

물류 브랜드 '부릉 (VROONG)'을 운영하는 IT 기반의 물류 스타트업 메쉬코리아가 푸드 컴퍼니 '쿡마켓'과 '쿡마켓'의 PB 상품 당일 배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메쉬코리아는 쿡마켓 상품을 당일 배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문 및 배송 시스템 연동 등 쿡마켓 상품의 배송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릉 기업물류 배송을 통해 주문한 당일 배송을 목표로 한다.

그 밖에 메쉬코리아는 미디어커머스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물류 시스템과 프로세스 구축으로 쿡마켓의 매출 극대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쿡마켓은 '오늘 뭐 먹지?', '쿡마켓', '맛집뉴스' 등 세계 70여 개국 SNS 채널 구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이사(왼쪽)와 쿡마켓 이문주 대표이사가 쿡마켓의 당일 배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메쉬코리아

독자 3200만명을 보유한 국내 푸드 스타트업이다. 음식 관련 콘텐츠와 함께 자체 브랜드(PB) 전문 푸드물류 쿡마켓을 통해 PB제품 판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운영하고 있다. 쿡마켓 코엑스 스타필드점을 시작으로 서울에 약 2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미래생활-초록우산 언택트 화장지 전달식

2000만원 상당 화장지 전달

잘풀리는집을 제조하는 미래생활이 나눔 캠페인 '#잘풀리는대한민국' 기부 챌린지 화장지 언택트 전달식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잘풀리는대한민국 기부챌린지는 1100명 이상의 고객들이 참여하는 호응을 받았다.

화장지 전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로 초록우산과 미래생활 세종본사에서 각각 진행했다.

#잘풀리는대한민국 해시태그 수에 따라 적립된 2000만원 상당의 화장지 2200팩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생활하는 전국의 그룹홈 550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백지연 기자